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1, pp. 545-553,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545

#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

김보미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 death of Social Welfare Students

Bo-Mi Kim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counsel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s,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r=.34, $p$=.001)와 삶의 만족도(r=.61, $p$<.001), 회복탄력성(r=.65, $p$<.001)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ß=.21, $p$=.002)과 삶의 만족도(ß=.22, $p$=.013)가 주요 영향요인이었으며, 이 모델은 20.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지지프로그램과 죽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ttitude to death, and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 death, in social welfar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79 social welfare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21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eaning in life(r=.34,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attitude to death. And life satisfaction(r=.61, $p$<.001) and resilience(r=.65, $p$<.001)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 death,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 to death, were grade(ß=.21, $p$=.002) and life satisfaction(ß=.22, $p$=.013), explaining 20.2% of the variance.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unseling and attitude to death programs that can positively change the attitude of social welfare students

Key Words : Social welfare, Attitude to death, Life satisfaction, Meaning in life, Resili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및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 치료의 확산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1].

이같은 죽음에 대한 사회현상의 변화로 사회복지학 분

*Corresponding Author : Bo-Mi Kim(heyeline@naver.com)
Received September 25, 2021
Revised October 27,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야에서의 죽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죽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3]. 특히 노인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인 노인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임종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임종의료결정을 돕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며, 환자와 가족, 전문 의료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한다[4]. 대상자의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임종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은 실습이나 전공교육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1]. 학생들이 실습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죽음이나 죽어가는 상황에 접촉하는 경우 공포와 슬픔, 혼동, 불안 및 클라이언트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기력감과 의기소침, 피로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5-6]. 또한 환자의 죽음이나 가족의 슬픔 뿐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5].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죽음에 대한 태도란 죽음에 대한 일련의 신념과 감정으로 임종과정에 대한 준비 태세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7].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임종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8].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거나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종과정에 대한 부담감, 공포,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6]. 이같은 죽음에 대한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임종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단기간에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시기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9].

삶의 의미는 개인적 고통과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 완충자원으로서 개인의 안녕감을 잘 유지하도록 돕는다[10]. 삶의 의미는 개인이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돕는 자원이며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11]. 삶의 의미는 죽음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삶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생의 의미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삶의 의미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통찰력이 높고 죽음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삶의 만족감은 개인이 생활전반에서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주관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14]. 삶의 만족도는 죽음의 수용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14]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15], 죽음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중립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는 죽음 과정을 수용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며[17],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능력을 말한다[18]. 회복탄력성이 낮은 간호사는 위기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스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여[19]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여주고 소진과 우울을 감소시킨다[20]. 이같은 회복탄력성은 임종과정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예측되는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에서 성별, 연령[21], 전공만족도, 죽음에 대한 경험[22], 죽음 교육 경험[22,23]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에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 분석과 일반적 특성 및 죽음관련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및 죽음관련 특

성에 따른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충청지역 소재 2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9개로 최소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66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192부가 회수되었고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17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0년 4월~6월동안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대상자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직접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자료수집 절차 등을 참여 학과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연구포스터와 구글 설문지 링크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응답을 막기 위해 구글 로그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계정은 수집하지 않았다. 설문지에는 연구 대상자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지 서명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포함하였다. 평균 응답 소요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선물을 제공하였다. 선물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전화번호는 선물 제공 후 삭제됨을 안내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Crumbaugh와 Maholick[24]가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로 이지순과 오원욱[25]이 번안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지순과 오원욱[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4였다.

#### 2.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Stones과 Kozma[2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도구를 윤진[27]이 수정·보완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도구는 20문항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2문항을 제외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과 10년 이상 경력의 현장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정서적 만족도 9문항, 인지적 만족도 9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윤진[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다.

#### 2.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와 김주환[28]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회복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사회성, 통제력, 긍정성의 3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우열, 김민규와 김주환[25]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2~.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87이었다.

#### 2.3.4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Thorson과 Powell[29]의 Death Anxiety Scale을 대학생 대상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김순희와 김동희[3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다.

###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등 서술적 통계 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및 죽음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성 109명(60.9%), 남성 70명(39.1%)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58명(32.4%)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만족한다" 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75명(41.9%)로 가장 많았다. 다른 사람의 죽음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명(25.7%)이었으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49명(27.4%)이었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7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Gender | Male | 70(39.1) |
| | Female | 109(60.9) |
| Grade | 1 | 58(32.4) |
| | 2 | 48(26.4) |
| | 3 | 33(18.4) |
| | 4 | 40(22.3) |
| Living Status | Rented/boarding house | 108(60.3) |
| | Parents | 52(29.1) |
| | Friend | 19(10.6) |
| Major Satisfaction | Very satisfied | 51(28.5 |
| | Almost satisfied | 77(43.0) |
| | Moderate | 38(21.2) |
| | Almost dissatisfied | 9(5.0) |
| | Very dissatisfied | 4(2.2) |
| Experience of other`s deaths | Yes | 46(25.7) |
| | No | 133(74.3) |
| Death related education | Yes | 49(27.4) |
| | No | 130(72.6) |

### 3.2 생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

대상자의 생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죽음에 대한 태도는<Table 2>와 같다. 생의 의미는 820점 만점에 66.44점이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90점 만점에 57.81점, 회복탄력성은 108저 만점에 87.51점, 죽음에 대한 태도는 80점 만점에 53.63점이었다.

Table 2. Participants' Meaning in Life, Life Satisfaction, Resilience, and Attitude to death Scores
(N =179)

| Variable | Min | Max | M±SD |
|---|---|---|---|
| Meaning in Life, | 20 | 80 | 66.44±5.98 |
| Life Satisfaction | 18 | 90 | 57.81±10.62 |
| Resilience | 27 | 108 | 87.51±9.65 |
| Attitude to death | 20 | 80 | 53.63±8.43 |

### 3.3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죽음에 대한 태도과의 관계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도(r=.61, p<.001), 회복탄력성(r=.65 p<.001), 죽음에 대한 태도(r=.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회복탄력성(r=.5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의 의미(r=.34, p<.001), 삶의 만족도(r=.36, p<.001), 회복탄력성(r=.17, p=.020)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eaning in Life, Life Satisfaction, Resilience, and Attitude to death
(N=179)

| Variable | Meaning in Life | Life Satisfaction | Resilience |
|---|---|---|---|
| | r(p) | r(p) | r(p) |
| Meaning in Life | - | | |
| Life Satisfaction | .61(<.001) | - | |
| Resilience | .65(<.001) | .54(<.001) | - |
| Attitude to death | .34(.001) | .36(<.001) | .17(.020) |

### 3.4 일반적 특성 및 죽음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 및 죽음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및 죽음관련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Table 4. Difference of Meaning in Life, Life Satisfaction, Resilience, Attitude to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 Characteristic | | n | Meaning in Life | Life Satisfaction | Resilience | Attitude to death |
|---|---|---|---|---|---|---|
| | | | M±SD | M±SD | M±SD | M±SD |
| Gender | Female | 70 | 66.70±4.29 | 59.37±10.68 | 88.32±8.85 | 53.15±8.11 |
| | Male | 109 | 66.28±6.86 | 56.80±10.50 | 86.99±10.13 | 53.92±8.65 |
| | t-value(p) | | .49(.619) | 1.58(.115) | .90(.367) | -.59(.553) |
| Grade | 1-2 | 106 | 65.63±5.73 | 55.72±9.63 | 87.13±9.26 | 51.49±7.11 |
| | 3-4 | 73 | 67.63±6.16 | 60.83±11.30 | 88.06±10.23 | 56.72±9.24 |
| | t-value(p) | | -2.22(.028) | -3.24(.001) | -.63(.525) | -4.07(.000) |
| Living Status | Rented/boarding house | 108 | 66.64±5.53 | 58.34±10.52 | 87.02±9.16 | 54.22±8.63 |
| | Parents | 52 | 65.73±6.76 | 56.09±11.58 | 87.80±10.70 | 53.03±8.63 |
| | Friend | 19 | 67.26±6.30 | 59.47±7.92 | 89.47±9.61 | 53.62±8.43 |
| | F-value(p) | | .60(.546) | 1.04(.353) | .55(.578) | .82(.442) |
| Major Satisfaction | Very satisfied | 51 | 66.98±5.26 | 58.17±11.73 | 88.56±8.30 | 53.78±8.18 |
| | Almost satisfied | 77 | 65.85±6.47 | 57.00±10.35 | 87.31±10.31 | 54.31±8.42 |
| | Moderate | 38 | 66.86±6.47 | 593.50±10.86 | 87.56±10.26 | 52.36±8.99 |
| | Almost dissatisfied | 9 | 67.22±4.17 | 56.77±7.32 | 85.11±10.56 | 51.77±8.84 |
| | Very dissatisfied | 4 | 65.25±3.77 | 55.00±3.55 | 87.75±7.13 | 54.50±7.18 |
| | F-value(p) | | .40(.803) | .45(.770) | .31(.866) | .45(.768) |
| Experience of other`s deaths | Yes | 46 | 65.69±6.35 | 56.32±10.82 | 87.97±8.85 | 53.32±6.07 |
| | No | 133 | 66.70±5.84 | 8.32±10.54 | 87.35±9.94 | 53.72±9.12 |
| | t-value(p) | | -.98(.324) | -1.10(.273) | .37(.706) | -.33(.736) |
| Death related education | Yes | 49 | 67.04±5.83 | 58.83±10.74 | 88.26±9.10 | 52.36±8.92 |
| | No | 130 | 66.22±6.04 | 57.42±10.59 | 87.23±9.87 | 54.10±8.22 |
| | t-value(p) | | .81(.416) | .638(.524) | .63(.524) | -1.22(.221) |

Table 5.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 Death

(N=179)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
| (Constant) | 26.80 | | | | <.001 |
| Grade (ref=1-2) | 3.66 | 1.18 | .21 | 3.08 | .002 |
| Meaning in Life | .38 | .13 | .27 | 2.82 | .005 |
| Life Satisfaction | .17 | .07 | .22 | 2.51 | .013 |
| Resilience | -.12 | .08 | -.14 | -1.50 | .134 |
| $R^2$=22.0 Adjusted $R^2$=20.2 F= *p*<.001 | | | | | |

보이지 않았다.

즉음에 대한 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저학년에 해당되는 1~2학년은 51.49점이었으며 고학년인 3~4학년은 56.7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07, *p*<.001).

## 3.5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 생의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71로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규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473~.627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79~2.113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학년(β=.21, $p$=.002)과 삶의 만족도(β=.22, $p$=.013)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두요인의 설명력은 20.2%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80점 만점에 53.63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총점으로 측정된 점수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항목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4점 만점에 2.68점이다. 이같은 결과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길태영과 조원희[31]의 연구에서 죽음의 태도가 실험군 2.97점, 대조군 3.00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박영숙과 김정희 [22]연구에서 2.70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죽음의 태도를 연구한 Park[32]의 연구에 죽음의 태도가 3.00점 이상인 경우 긍정적 태도, 2.00-2.99점인 경우 보통 수준, 1.99점 이하인 경우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로 해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임종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이다[4]. 따라서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do-Gual 등[5]는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죽음과 처음 직면하여 경험하는 방식은 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어 기전을 결정하며, 전문직 몰입이나 임종환자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죽음을 경험한 대상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5]. 이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임상실습동안 경험한 환자의 죽음경험이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의 상담 및 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죽음과 관련된 감정과 반응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는 교육으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28]. 이같은 죽음과 관련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 차원에서의 죽음 뿐만아니라 전문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자의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은 27.6%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복지 전공 교육과정 내에 죽음관련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죽음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삶의 만족도와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예측되었다. 학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향은 고학년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1]와 유사하며 고학년의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33]. 이같은 결과는 고학년일수록 전공교육과정 및 현장실습과정을 통해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죽음에 대해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죽음이나 죽음과정에서의 경험을 부정적 경험이 아닌 성숙한 경험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교육 과정 내에서 학년과 현장실습 경험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현장을 재현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을 통하여 죽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은 삶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양승애[34]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계화와 이현지[15]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죽음 불안과 관련이 높은 변수로 삶의 만족도과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16] 죽음 불안이 낮아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죽음 불안을 낮추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교육과정 내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실습을 통해 죽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학과의 학

생들의 경우 실습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36]. 이에 실습이 진행되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갈등관리프로그램[37] 및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38], 상담프로그램[39] 등의 시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실습기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 대상자 죽음 관련 느낌과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지지 및 상담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회복탄력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22]와 상반된 결과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적어 체계적 비교분석이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박영숙과 김정희[22]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임종 간호 태도를 분석한 김원순[40]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이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학년 특성 및 죽음에 대한 특성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행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임상 실습 및 죽음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3, 4학년의 비율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습 및 죽음에 대한 경험이 적은 저학년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Santos와 Moreira[41], Stenphens [42]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활동 자체를 통해 형성되고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말해 돌봄 제공 행위를 통해 안녕 상태나 긍정적 적응을 높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같은 회복탄력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대상자의 학년 및 현장실습 경험 등과 관련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에 비해 죽음에 대한 경험과 교육 경험이 더 많은 간호학과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와 학과별 회복탄력성의 비교 분석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가 많은 힘든 상황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해가는 능력으로[22], 현장실습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죽음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전공교육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지지와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72.6%는 죽음관련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3, 4학년생이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보다 죽음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학년과 삶의 만족도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죽음의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실습 동안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환자의 죽음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지지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기존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고유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들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S. H. Lim.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Advance Healthcare Directives and Death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Focusing on Grade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37(2), 295-317.
DOI : 10.18859/ssrr.2021.5.37.2.295

[2] Y. R. Cha. (2018). The Effect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Death Anxiety of 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4, 301-318.
DOI :10.20993/jssw.44.12

[3] H. K. Park & J. Y. Kwon. (2017). Experience of Social Worker for Elderly Client's Death. Mental Health &

Social Work, 45(4), 109-138.
DOI : 10.24301/mhsw.2017.12.45.4.109

[4] S. Y. Han. (2016). Social Worker s Knowledge of Advance Life Sustaining Care Directives and Experience of Aids End of Life Care Decision Making Process : Geriatric Hospital and Long Term Care Facilit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2, 289-329.

[5] M. Edo-Gual, J. Tomás-Sábado, D. Bardallo-Porras, & C. Monforte-Royo. (2014). The impact of death and dying on nursing students: An explanatory model.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23-24), 3501-3512.
DOI : 10.1111/jocn.12602

[6] M. Edo-Gual, C. Monforte-Royo, A. Aradilla-Herrero, & J. Tomás-Sábado. (2015). Death attitudes and positive coping in Spanish nursing undergraduates: A cross-sectional and correla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4(17-18), 2429-2438.
DOI : 10.1111/jocn.12813

[7] S. J. Kim, H. M. Sa, S. K. Son, H. J. Song, E. J Yu, M. K. Yoon, et al. (2010). A study on attitudes of nursing student toward death related to death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Academy Association Ewha Womans University, 44, 83-96.

[8] Y. E. Lee, E. J. Choi, J. S. Park, S. H. Shin. (2013). Perception and Knowledge of Hospice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Held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the Same Reg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6(4), 242-252.
DOI : 10.14475/kjhpc.2013.16.4.242

[9] K. E. Chang. (2012).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Death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 With a Focu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Daegu, Ko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3), 423-437.

[10] T. Y. Kil. (2017). Analysis of trends in social welfare research related to death prepara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2), 267-301.
DOI : 10.16999/kasws.2017.48.2.267

[11]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ler. (200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12] G. H. Choi, & S. H. Kwon. (2018). The Effects of a Hospice Palliative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 of Hospice,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of Life in Adult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1(1), 14-22.
DOI : 10.14475/kjhpc.2018.21.1.14

[13] D. R. Won, K. H. Kim, S. J, & Kwon.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2), 211-225.

[14] R. A. Neimeyer, J. Wittkowski, & R. P. Moser. (2004). Psychological research on death attitudes: an overview and evaluation. Death Studies, 28(4), 309-340.
DOI : 10.1080/07481180490432324

[15] K. H. Jo, & H. J. Lee. (2008).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pression, Level of Satisfaction and Death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29-237.
DOI : 10.4040/jkan.2008.38.2.229

[16] Y. M. Song & Y. Kyung. (2011). A study on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54, 111-134.
DOI : 10.21194/kjgsw..54.201112.111

[17] S. J. Song, & S. H. Yeon. (2018).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Burnout: Focusing on Nurses' Experi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544-570.
DOI : 10.15709/hswr.2018.38.4.544

[18] D. Jackson, A. Firtko, & M. Edenborough. (2007).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1), 1-9.
DOI : 10.1111/j.1365-2648.2007.04412.x

[19] N. W. Kang, & J. H. Kim. (2012). The correlation among resilience, stressors and stress coping styles.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2(2), 69-94.

[20] S. F. Gomes, M. M. Santos, & E. T. Carolino, (2013). Psychosocial risks at work :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oncology nurses.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1(6), 1282-1289.
DOI : 10.1590/0104-1169.2742.2365

[21] M. J. Choi. (2010) Research on social welfare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5, 246-258.

[22] Y. S. Park, & J. H. Kim. (2017). Influence of attitude to death and resilience on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3(1), 37-47.
DOI : 10.5977/jkasne.2017.23.1.37

[23] H. J. Lee, & S. T. Park, (2010). A Need assessment of death education and death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3, 55-73.

[24] J. C. Crumbaugh, & L. J. Maholic. (1964).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Munster :Psychometric Affiliates.

[25] J. S. Lee, & W. O. Oh. (2007). Factors Influencing Vitality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7(5), 676-683.
DOI : 10.4040/jkan.2007.37.5.676

[26] N. P. Stones, & A. Kozma. (1980). Issues Relating to the Usage and Conceptualization of Mental Health

Constructs Employed by Gerontolog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4), 69-281.
DOI : 10.2190/43w5-p9we-3v42-5rj0

[27] J. Yeon. (1982). The Developing the Inventory of the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6-30.

[28] W. Shin, M. Kim, & J.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29] J. A. Thorson, & F. C. Powell,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30] S. H. Kim, & D. H. Kim. (2011).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death, death-related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05-413.
DOI : 10.5977/jkasne.2011.17.3.405

[31] T, Y. Kil, & W. H. Cho. (2017). The Effect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Death Attitude and Meaning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37-64.
DOI : 10.22836/kaswpr.2017.8.2.37

[32] S. C. Park, (1992).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1), 68-80.

[33] S. E. Kim, (2014).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san.

[34] S. A. Yang. (2016). Convergenc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nd-of-life Care Attitud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141-154.
DOI : 10.15207/JKCS.2016.7.4.141

[35] H. S. Jang, & Y. I. Choi. (2007). Relationships among Fear of Death,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4(4), 105-122.

[36] S. H. Kim, D. H. Kim, & H. M. Son. (2011).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4(3), 144-151.
DOI : 10.14475/kjhpc.2012.14.3.144

[37] I. S. Park. (2017). The Effect of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CCM program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y,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1(2), 15-25.

[38] R. Y. Young, & B. C. Keum. (2013). The Effect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s on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04-113.
DOI: 0.14370/jewnr.2013.19.2.104

[39] S. J. Kim, I. J. Jeong, & B. Y. Kim. (2019).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rateg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347-355.
DOI : 10.15207/JKCS.2019.10.10.347

[40] W. S. Kim, (2021).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end-of-term nursing attitude of clinical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5, 2021, pp. 223-234
DOI :10.22251/jlcci.2021.21.5.223

[41] Santos, R. A., & Moreira, M. C. N. (2014). Resilience and death: the nursing professional in the car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life-limiting illness. Ciência & Saúde Coletiva, 19(12), 4869-4878
DOI : 10.1590/1413-812320141912.18862013

[42] Stephens, T. M. (2012). Increasing resilience in adolescent nursing students. Retrieved September 6, 2016, from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Trace (Tenessee Research and Creative Exchange) Web site: http://trace.tennessee.edu/utk_graddiss/

김 보 미(Bo-Mi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8년 2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상담
· E-Mail : kbm5878@hanmail.net